

최근 한국의 대(對)아세안 교역·투자 분석과 시사점

이재호 세계지역연구센터 동남아대양주팀 선임연구원 (ihlee@kiep.go.kr, 044-414-1134)



차 례

1. 개요
2. 한국의 對아세안 교역 추이 분석
3. 한국의 對아세안 직접투자 추이 분석
4. 시사점

주요 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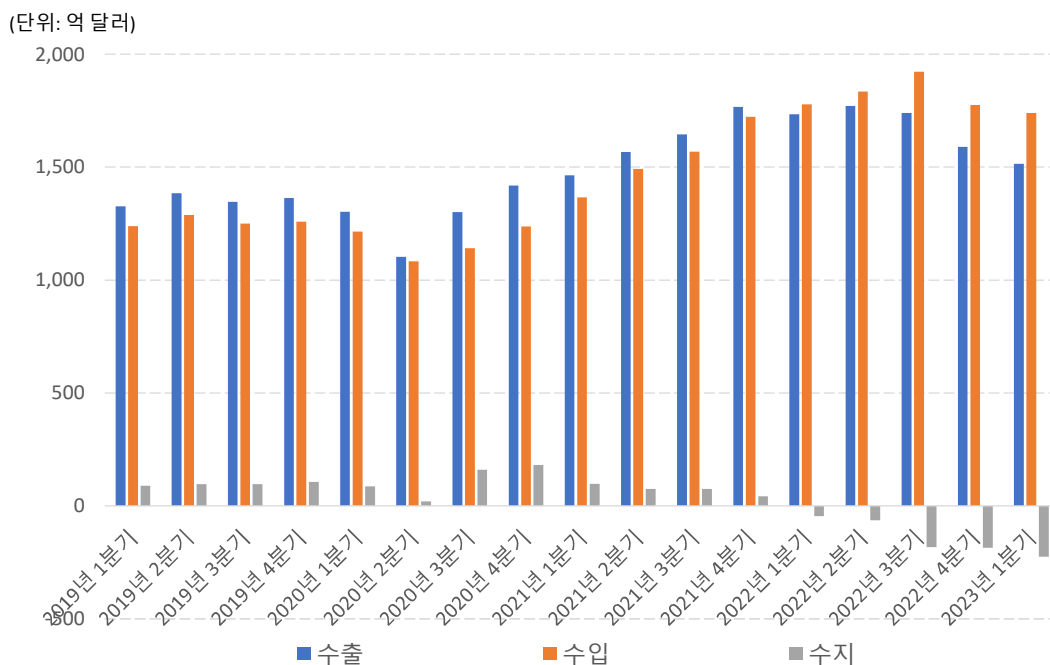
- ▶ 한국의 대외 교역은 팬데믹에도 불구하고 지속 증가해 2022년 사상 최대 규모를 달성했으나, 2022년 1/4분기부터 시작된 무역수지 악화에 대해서는 대응책 마련이 필요한 상황임.
 - 최대 교역대상국으로서 중국의 입지는 변하지 않았으나 수년간 대중국 무역수지가 지속 감소해 최근 적자로 전환되었으며, 그에 반해 2대 교역대상지인 아세안과의 교역 및 무역수지는 2022년 사상 최대규모를 기록해 무역수지 적자 해소를 위한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음.
- ▶ 한국의 對아세안 교역은 2022년 2/4분기부터 글로벌 수요 감소 및 생산 네트워크 위축으로 인해 수출 감소가 관찰됨.
 - 한국의 對아세안 수출은 생산 네트워크에 활용되는 자본재(설비), 중간재(부품 및 원자재)의 비중이 약 95%에 달하며, 소비재 및 1차 산품의 비중은 5% 내외에 불과해 생산 네트워크의 활성화에 따라 등락하는 경향이 있음.
 - 對아세안 수출 감소는 아세안 국가 중 최대 교역대상국인 베트남과의 생산 네트워크 부진에서 비롯된 경향이 크며, 최근 글로벌 수요 위축의 영향으로 베트남의 최대 수출품목인 휴대전화 생산에 사용되는 전자 집적회로, 평판디스플레이 등 주요 중간재 수출이 큰 폭으로 감소함.
- ▶ 최근 한국의 對아세안 직접투자에서는 아세안 국가 중 최대 투자대상국이었던 베트남에 대한 투자 감소 및 다변화 현상이 발견됨.
 -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아세안 국가 중 최대 투자대상국이었던 베트남에 대한 투자가 감소해 싱가포르에 최대 투자대상국 지위를 내어주었으며, 인도네시아에 대한 투자 비중은 점차 증가함.
 - 업종별로는 최대 투자업종인 제조업의 對베트남 투자 감소 및 對인도네시아 신규 투자 증가가 관찰됨.
- ▶ 향후 글로벌 수요 회복 및 신규 투자 프로젝트 진행으로 생산 네트워크가 활성화될 경우 對아세안 수출이 재반등할 것으로 예상되며, 아세안 맞춤형 수출전략을 구축하기 위한 산·관·학 정책 연구 및 현업의 의견을 신속히 수용할 수 있는 대화 채널 구축이 필요함.
 - 수출전략회의에서 수출 확대를 위한 기본방향 및 분야별 실행계획이 제시되었으나, 이에 더해 對아세안 협력안인 '한-아세안 연대구상'과 아세안의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전략을 추가할 필요가 있음.

1. 개요

■ 한국의 대외 교역은 지난 3년간 코로나19 팬데믹의 영향에도 불구하고 꾸준히 증가해왔으나, 2022년 1/4분기부터 무역적자 규모가 증가하는 추세임.

- 2022년 한국의 수출은 6,836억 달러로 전년대비 6.1% 증가한 반면 수입은 7,314억 달러로 전년대비 12.3% 증가해 사상 최대 규모의 교역량을 달성했으나, 무역수지는 478억 달러의 적자를 기록함.
- 무역수지 적자는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처음으로 발생한 것으로, 2022년 1/4분기 이후 적자폭이 지속 증가해 2023년 1/4분기 기준 무역적자가 225억 달러를 기록했으며, 이는 2022년 전체 무역수지 적자의 절반 수준에 육박함.

그림 1. 한국의 대외 교역 추이(2019년 1/4분기~2023년 1/4분기)



자료: 한국무역협회, 글로벌무역통계서비스(검색일: 2023. 5. 4).

■ 국별 교역의 경우 최대 교역대상국으로서 중국의 입지는 변하지 않았으나, 2022년 대중국 무역수지가 대폭 감소한 반면 2위 교역대상지인 對아세안 교역 및 무역수지는 사상 최대규모를 기록한 것이 특징임.

- 한국의 교역 총액에서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은 2019년 23.3%에서 2022년 21.9%로 감소했으며, 같은 기간 무역수지 또한 290억 달러에서 12억 달러로 크게 감소함.
 - 최근 對중국 무역수지는 2022년 1/4분기 59억 달러 흑자를 기록한 이래 적자로 전환되었는데 2/4분기 17억 달러 적자, 3/4분기 3억 달러 적자, 4/4분기 27억 달러 적자를 기록했으며, 2023년 1/4분기에는 무역수지 적자가 79억 달러로 크게 증가함.

- 2대 교역대상지인 아세안의 경우 2020년 코로나19 팬데믹 발생으로 교역이 소폭 감소한 후 2년 연속 사상 최대 규모의 교역 및 무역수지를 경신했으나, 2022년 4/4분기부터 수출이 감소함.
 - 2022년 4/4분기부터 한국의 對아세안 수출이 감소하기 시작했으며, 2023년 1/4분기 264억 달러로 전년동기대비 약 19% 감소한 반면 수입은 소폭 증가해 무역수지 흑자가 54억 달러로 전년동기대비 약 53% 감소함.
 - 2023년 1/4분기에는 對아세안 수출 감소로 아세안이 일시적으로 2대 수출대상국의 지위를 미국에 내어주었으나, 수입을 합한 교역액 기준으로는 중국에 이어서 2위를 유지함.

표 1. 한국의 주요국별 교역 추이(2020년~2023년 1/4분기)

(단위: 억 달러)

순위	국가명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1/4분기		
		수출	수입	수지	수출	수입	수지	수출	수입	수지	수출	수입	수지
1	중국	1,326	1,089	237	1,629	1,386	243	1,558	1,546	12	295	374	-79
2	아세안	890	548	342	1,088	677	411	1,249	825	424	264	210	54
3	미국	741	575	166	959	732	227	1,098	818	280	269	197	72
4	EU	475	551	-76	636	659	-23	681	682	-1	178	170	8
5	일본	251	460	-209	301	546	-245	306	547	-241	71	127	-56
9	호주	62	187	-125	98	329	-231	188	449	-261	42	104	-62
7	대만	165	178	-13	243	235	8	262	283	-21	43	61	-18
6	홍콩	307	15	292	375	22	353	277	19	258	45	4	41
8	인도	119	49	70	156	81	75	189	89	100	45	17	28
10	멕시코	82	64	18	113	79	34	127	86	41	30	21	9
총계		5,125	4,676	449	6,444	6,151	293	6,836	7,314	-478	1,515	1,740	-225

자료: 한국무역협회, 글로벌무역통계서비스(검색일: 2023. 5. 4).

- 본고에서는 對아세안 무역 및 투자 현황을 분석해 최근 주요 대외경제 이슈로 주목받고 있는 무역수지 개선을 위한 시사점을 발굴하고자 함.

2. 한국의 對아세안 교역 분석

- 최근 한국의 對아세안 교역에서 수출은 베트남을 중심으로 감소세를 보이거나 수입은 완만한 증가세를 유지해옴.
 - 2022년 2/4분기부터 주요 수출대상국인 베트남, 싱가포르, 인도네시아 등에 대한 수출이 지속 감소하고 있으며, 특히 최대 수출대상국인 베트남으로의 수출이 크게 감소한 것이 특징임.
 - 2023년 1/4분기 한국의 對아세안 수출은 264억 달러로 전년동기대비 62억 달러 감소했으며, 이 중 對베트남 수출 감소액이 42억 달러로 약 68%의 높은 비중을 차지함.
 - 큰 폭의 감소세를 기록한 수출과 달리 수입은 완만한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으며, 특히 말레이시아와 인도네시아로부터의 수입이 지속 증가하는 것이 특징임.

그림 2. 한국의 對아세안 국가별 수출 추이(분기별)

(단위: 억 달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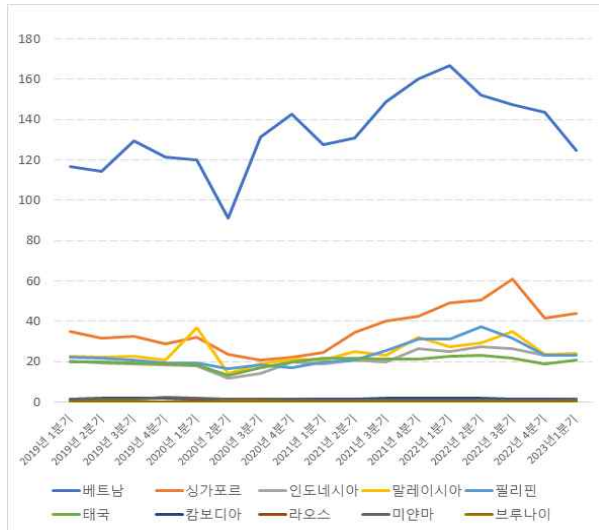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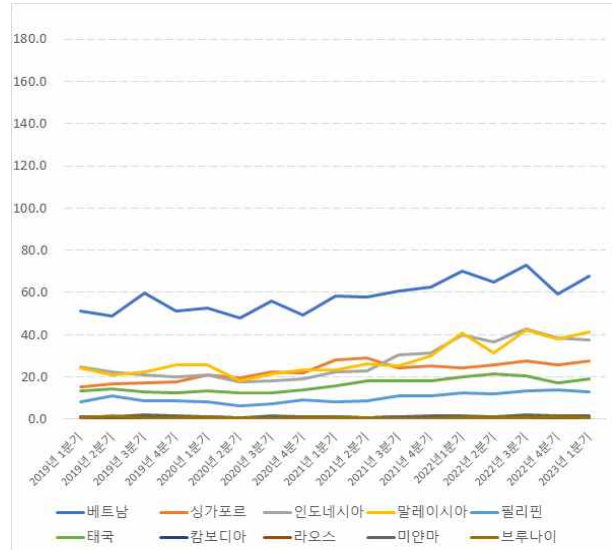


그림 3. 한국의 對아세안 국가별 수입 추이(분기별)

(단위: 억 달러)



자료: 한국무역협회, 글로벌무역통계서비스(검색일: 2023. 5. 9).

- 2023년 1/4분기 對아세안 10대 수출 품목 대다수가 두 자릿수의 마이너스 성장률을 기록했으며, 특히 전자집적회로(HS-8542), 평판디스플레이(HS-8524) 등 베트남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은 품목의 수출 감소가 두드러짐.

표 2. 한국의 對아세안 및 對베트남 주요 수출 품목 비교(2023년 1/4분기)

(단위: 억 달러, %)

순위	HS-Code	품목명	아세안		베트남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1	8542	전자집적회로	49.0	-29.2	29.0	-27.8
2	2710	석유·역청유(원유제외)	41.4	-20.9	8.9	-25.4
3	8524	평판디스플레이	22.6	-31.9	22.5	-31.9
4	8901	선박	6.9	93.9	0.0	0.0
5	8517	전화기	4.4	4.0	3.1	-17.9
6	8534	인쇄회로	4.2	-32.4	2.6	-39.7
7	8529	디스플레이 부분품	3.7	-20.5	3.4	-18.6
8	8486	반도체 기기·부품	3.1	-8.2	1.5	40.9
9	8541	반도체 디바이스	2.9	-17.8	2.1	-16.4
10	8708	자동차 부품	2.9	-13.0	2.0	-14.4
수출 총액			263.7	-19.0	124.7	-25.2

자료: 한국무역협회, 글로벌무역통계서비스(검색일: 2023. 5. 4).

- 한국의 對아세안 수출은 생산 네트워크에 활용되는 자본재 및 중간재 비중이 약 95%에 달하는 반면 소비재 및 1차 상품의 비중은 5% 내외에 그치는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 중간재 수출이 2022년 4/4분기부터 감소하기 시작해 2023년 1/4분기에는 전년동기대비 23.6% 감소함.

표 3. 한국의 對아세안 생산단계별 교역 분석(2022년 1/4분기~2023년 1/4분기)

(단위: 억 달러, %)

수출	1차 산품		소비재		자본재		중간재		기타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2022년 1/4분기	1.9	18.8	13.0	-7.5	27.1	5.9	283.3	47.3	0.4	-77.0
2022년 2/4분기	2.0	-4.8	14.9	11.5	26.6	-4.0	278.8	31.2	0.2	2.3
2022년 3/4분기	1.7	5.2	14.0	23.5	27.0	12.9	281.8	15.2	0.2	177.0
2022년 4/4분기	1.7	-6.8	14.7	4.8	24.0	-7.2	235.5	-14.0	0.4	76.7
2023년 1/4분기	1.8	-3.1	15.1	15.9	30.2	11.8	216.4	-23.6	0.2	-49.4
수입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2022년 1/4분기	20.8	88.9	32.8	7.6	39.0	12.3	116.7	43.7	1.6	20.2
2022년 2/4분기	25.7	110.7	30.0	3.6	33.6	8.1	103.3	13.9	1.8	9.8
2022년 3/4분기	22.8	49.2	38.4	29.1	33.9	8.7	126.5	33.8	2.1	20.8
2022년 4/4분기	21.3	35.5	32.2	6.0	32.5	-1.7	108.2	8.4	1.9	-8.8
2023년 1/4분기	22.1	6.5	34.5	5.3	36.3	-6.9	115.1	-1.4	1.5	-9.2

자료: 한국무역협회, 글로벌무역통계서비스(검색일: 2023. 5. 4).

■ 최근 한국의 對아세안 국별, 품목별, 생산단계별 교역 분석에 따르면 對아세안 수출 감소는 글로벌 수요 위축의 영향이 큰 것으로 추정됨.

- 특히 최근 글로벌 수요 위축으로 베트남의 최대 수출 품목인 휴대전화를 포함한 전자기기 수출 부진이 전반적인 수출 감소를 주도하고 있으며, 이는 한국의 대베트남 수출 감소로도 이어짐.
 - 2022년 베트남의 수출액은 약 3,713억 달러로 전년대비 10.6% 증가했으나, 2022년 8월부터 수출이 감소하기 시작해 2023년 1~4월 수출액은 약 1,086억 달러로 전년동기대비 11.8% 감소함.
 - 특히 베트남 수출 총액의 약 20%를 차지해온 최대 수출 품목인 휴대전화 수출은 2022년 8월 약 62억 달러에서 같은 해 12월에는 약 31억 달러까지 급감해 전반적인 수출 감소를 주도함.
 - 베트남의 휴대전화 및 전자기기 수출 부진은 주요 설비 및 중간재 공급을 담당하는 한국의 대베트남 수출 감소로 이어지고 있으며, 2023년 1/4분기 주요 수출품목인 전자집적회로 및 평판디스플레이의 對베트남 수출이 각각 전년대비 27.8%, 31.9% 감소함.

3. 한국의 對아세안 직접투자 추이 분석

■ 코로나19 팬데믹 발생 이후 한국의 對아세안 직접투자에서 주요 투자대상국이었던 베트남의 비중이 감소한 반면 상대적으로 투자 비중이 미약했던 인도네시아에 대한 투자가 증가함.

- 코로나19 팬데믹 후 3년간 기준 최대 투자대상국이었던 베트남에 대한 투자가 크게 감소해 싱가포르에 최대 투자대상국 지위를 내어주었으며, 인도네시아에 대한 투자 비중은 지속 증가함.
 - 한국의 對아세안 투자는 베트남과 싱가포르가 차지하는 비중이 크게 높은 것이 특징인데, 코로나19 팬데믹 동안 이 두 국가의 비중이 79%에서 65%로 감소한 반면 인도네시아에 대한 투자 비중은 10%에서 2021년에 20%까지 증가한 바 있음.

표 4. 한국의 對아세안 국가별 직접투자 추이(2019~22년)

(단위: 백만 달러, %)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국가	금액	비중	국가	금액	비중	국가	금액	비중	국가	금액	비중
베트남	4,615	45.1	싱가포르	3,865	38.7	베트남	2,514	27.8	싱가포르	3,001	34.3
싱가포르	3,462	33.8	베트남	2,838	28.4	싱가포르	2,514	27.7	베트남	2,754	31.5
인도네시아	990	9.7	인도네시아	1,320	13.2	인도네시아	1,832	20.2	인도네시아	1,451	16.6
미얀마	287	2.8	캄보디아	933	9.3	말레이시아	843	9.3	말레이시아	619	7.1
캄보디아	244	2.4	미얀마	672	6.7	캄보디아	546	6.0	미얀마	346	4.0
말레이시아	240	2.3	말레이시아	139	1.4	미얀마	465	5.1	캄보디아	284	3.3
필리핀	239	2.3	태국	108	1.1	태국	220	2.4	태국	142	1.6
태국	93	0.9	필리핀	107	1.1	필리핀	86	0.9	라오스	74	0.8
라오스	69	0.7	라오스	2	0.0	라오스	39	0.4	필리핀	73	0.8
브루나이	0	0.0	브루나이	2	0.0	브루나이	1	0.0	브루나이	0	0.0
합계	10,240	100.0	합계	9,985	100.0	합계	9,060	100.0	합계	8,744	100.0

자료: 한국수출입은행, 해외직접투자통계(검색일: 2023. 5. 10).

■ 한국의 對아세안 업종별 투자에서는 제조업이 약 35%, 금융보험업이 약 25%의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특징이며, 코로나19 팬데믹의 영향으로 제조업 투자가 크게 감소한 후 점차 반등함.

- 2020년 코로나19 발생으로 제조업에 대한 투자가 전년대비 약 32% 감소한 후 일부 반등했으며, 금융·보험에 대한 투자는 2021년부터 지속 감소함.

표 5. 한국의 對아세안 업종별 직접투자 추이(2019~22년)

(단위: 백만 달러, %)

업종 대분류	2019		2020		2021		2022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농림어업	68	0.7	32	0.3	25	0.3	19	0.2
광업	254	2.5	226	2.3	451	5.0	365	4.2
제조업	4,193	40.9	2,846	28.5	3,395	37.5	3,418	39.1
전기·가스·스팀	175	1.7	152	1.5	157	1.7	456	5.2
수도·하수·폐기물	3	0.0	6	0.1	15	0.2	42	0.5
건설업	260	2.5	305	3.1	326	3.6	268	3.1
도소매	738	7.2	1,343	13.4	837	9.2	465	5.3
운수·창고	117	1.1	127	1.3	62	0.7	210	2.4
숙박·음식점	107	1.0	104	1.0	41	0.5	35	0.4
정보통신업	258	2.5	244	2.4	556	6.1	261	3.0
금융·보험	2,763	27.0	3,042	30.5	2,192	24.2	2,028	23.2
부동산업	603	5.9	1,096	11.0	401	4.4	428	4.9
과학·기술	515	5.0	347	3.5	444	4.9	678	7.7
사업시설·임대	40	0.4	45	0.4	121	1.3	56	0.6
행정·국방	0	0.0	0	0.0	0	0.0	0.0	0.0
교육	24	0.2	42	0.4	7	0.1	5	0.1
보건·사회복지	17	0.2	1	0.0	16	0.2	4	0.0
예술·스포츠	103	1.0	25	0.2	12	0.1	7	0.1
기타 개인서비스	2	0.0	1	0.0	0	0.0	1	0.0
합계	10,240	100.0	9,985	100.0	9,060	100.0	8,744	100.0

자료: 한국수출입은행, 해외직접투자통계(검색일: 2023. 5. 10).

■ 제조업 투자의 경우 최대 투자대상국인 베트남에 대한 투자는 감소한 반면 인도네시아에 대한 투자는 지속 증가한 것이 특징임.

- 한국의 對아세안 제조업 투자에서 베트남이 차지하는 비중이 2019년 62.3%에서 2021년 40.5%까지 감소한 후 2022년 50% 수준까지 회복된 반면, 인도네시아가 차지하는 비중은 2019년 11.4% 수준이었으나 이후 지속 증가해 2022년 29.3%로 비중이 확대됨.
- 팬데믹 기간 베트남 정부의 강력한 방역정책과 글로벌 수요 부진의 영향으로 對베트남 제조업 투자가 지연된 반면, 인도네시아의 경우 최근 수년간 코로나19 팬데믹에도 불구하고 한국 기업들이 자동차, 배터리 등의 분야에서 대규모 신규 투자를 진행해온 점이 반영된 것으로 판단됨.

표 6. 한국의 제조업 내 對아세안 국가별 직접투자 추이(2019~22년)

(단위: 백만 달러, %)

국가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금액	비중	금액	비중	증가율	금액	비중	증가율	금액	비중	증가율
베트남	2,614	62.3	1,734	60.9	-33.7	1,375	40.5	-20.7	1,724	50.4	25.4
인도네시아	479	11.4	573	20.1	19.5	820	24.1	43.2	1,001	29.3	22.1
말레이시아	176	4.2	33	1.2	-81.0	757	22.3	2,163.4	453	13.2	-40.2
싱가포르	716	17.1	313	11.0	-56.3	314	9.2	0.2	83	2.4	-73.6
태국	31	0.7	56	2.0	80.4	46	1.3	-18.3	74	2.2	60.8
필리핀	82	2.0	72	2.5	-11.6	36	1.0	-50.9	32	0.9	-11.1
미얀마	50	1.2	53	1.9	6.2	39	1.1	-26.9	38	1.1	-3.0
캄보디아	44	1.1	12	0.4	-73.6	9	0.3	-22.3	14	0.4	52.6
라오스	0	0.0	0	0.0	-56.4	0	0.0	-100.0	0	0.0	100.0
합계	4,193	100.0	2,846	100.0	-32.1	3,395	100.0	19.3	3,418	100.0	0.7

자료: 한국수출입은행, 해외직접투자통계(검색일: 2023. 5. 10).

■ 최근 한국의 對아세안 직접투자는 글로벌 수요 부진으로 인한 對베트남 투자 지연과 인도네시아에 대한 전략적 대규모 제조업 투자 증가로 요약됨.

- 글로벌 수요 위축으로 인한 베트남의 수출 감소가 대규모 생산 네트워크를 운영해온 한국기업의 對베트남 수출 감소 및 투자 지연으로 이어진 것으로 판단됨.
- 반면 최근 對인도네시아 제조업 투자 증가는 자동차, 배터리 등 한국 주력 산업의 대규모 전략적 신규 투자가 주도하고 있는 점이 유의미함.

4. 시사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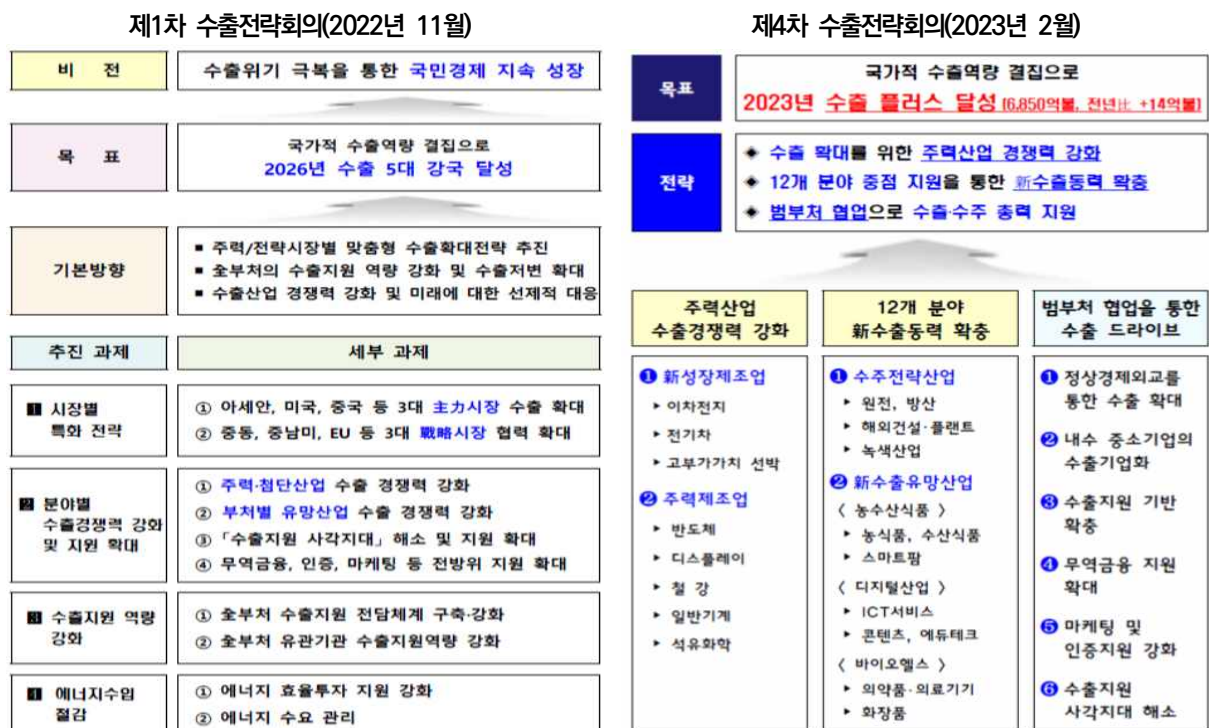
■ 최근 대중 수출 위축을 보완한 핵심 교역 대상지로 아세안을 주목할 필요가 있으나, 對아세안 교역 감소에 대한 면밀한 분석과 대응책 마련이 요구되는 상황임.

- 한국의 對아세안 교역은 2021~22년 기간 최대 규모의 교역과 무역수지 흑자를 경신했으나, 2022년 4/4분기부터 글로벌 수요 부진으로 인한 생산 네트워크 위축에 따라 對아세안 수출이 감소했으며, 對아세안 직접투자도 감소하는 추세이나 對인도네시아 투자 증가로 인한 다변화가 관찰됨.
- 향후 글로벌 수요 회복 시 아세안 생산 네트워크 활성화로 인한 수출 반등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며, 최근 인도네시아에서 진행되고 있는 자동차, 배터리 등 대규모 신규 투자 프로젝트로 구축된 생산 네트워크의 활성화로 인한 교역 확대도 기대됨.

■ 정부는 2022년 제1차 수출전략회의 개최 이래 다수의 범부처 회의를 통해 수출 지원전략을 구체화하고 있음.

- 1차 수출전략회의에서는 아세안을 3대 주력시장(미국·중국·아세안)으로 선정하고 對아세안 수출확대 전략으로 ① 시장 다각화, 핵심광물 협력 ② 소비자·서비스·인프라 등 전방위 수출 확대 ③ 지적권 보호, 규제 완화, 현지 지원 등 시장 리스크 최소화 등을 제시한 바 있음.
- 2023년 2월에 제4차 개최된 수출전략회의에서는 주력산업(新성장제조, 주력제조), 12대 분야, 범부처 협업 등을 중심으로 한 '2023년 범정부 수출 확대전략'을 채택함.

그림 4. 최근 수출전략회의 주요 내용



자료: 기획재정부 보도자료(2022. 11. 23), 산업통상자원부 보도자료(2023. 2. 23) 내용 발췌·인용.

■ 상기 수출전략회의에서 제시된 전반적인 기본방향과 분야별 실행계획을 기반으로, 주요 지역별 특성을 감안한 맞춤형 전략을 추가한 중형(縱橫) 형태의 정책 매트릭스를 구현해야 할 시점임.

- 제1차 수출전략회의에서 제시한 對아세안 수출 전략은 최근 對아세안 교역·투자 현황 및 시장 특성이 고르게 반영된 시의적절한 전략이며, 제4차 수출전략회의에서는 1차 전략회의에서 제시된 기본 방향과 목표를 구현하기 위한 분야별 실행 계획을 구체화한 것으로 볼 수 있음.
- 상기 회의에서 채택된 수출전략 기본방향(1차 회의) 및 분야별 계획(4차 회의)에 이어서 지역별 특성에 맞게 적용할 수 있는 對아세안 맞춤형 수출전략을 수립할 시기임.

■ 최근 정부는 한국판 인도-태평양 전략의 對아세안 특화 전략인 ‘한-아세안 연대구상(KASI: Korea-ASEAN Solidarity Initiative)’의 3대 비전인 자유·평화·번영 중 ‘번영’을 기치로 아세안과의 협력 방향을 제시함.

- KASI의 對아세안 협력 비전 중 ‘번영’ 분야는 ①디지털, 전기차, 스마트시티 등 미래 분야 협력, 통상 및 경제안보 네트워크 강화, ②기후·환경 등 국제적 도전과제 대응 및 소지역협력, ③차세대 교류 및 인적 자원 육성, ④對아세안 ODA 확대 및 관련 재원 확충 등 4대 중점 추진 과제로 구성됨.
- 4대 중점 추진 과제 중 특히 디지털, 전기차, 스마트시티 등 미래 분야 협력을 통한 신규 경제교류 수요 창출에 주목할 필요가 있으며, 기존 무역협정의 업그레이드는 물론 디지털 통상을 포함한 추가 자유화를 위한 공동연구 또한 요구되는 시점임.
- 아세안 10개 국가별 특성 및 한국과의 관계를 감안한 일종의 중점협력국, 전략협력국, 미래협력국 등으로 구성한 맞춤형 전략 구성도 필요함.

■ 최근 한국의 對아세안 교역·투자 현황에 대한 분석 및 수출 확대정책을 전반적으로 고려할 때 기존 수출전략회의에서 제시된 전략에 더해 아세안 맞춤형 수출·투자 정책을 추가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됨.

- 이를 위해 아세안의 지역별 특성을 반영한 산·관·학 형태의 수출·투자 정책 연구가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보이며, 다양한 분야에 걸친 현업의 의견을 신속히 반영할 수 있는 회의 혹은 대화체 운영도 동반되어야 할 것으로 보임. **KIEP**